

http://dx.doi.org/10.17703/JCCT.2022.8.3.393

JCCT 2022-5-48

<킬링 디어>에 드러난 고대 그리스 비극의 변용

Transformation of Ancient Greek Tragedy Revealed in *The Killing of a Sacred Deer*

권은선*

Eunsun Kwon*

요약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킬링 디어>는 그리스 3대 비극작가 중 한명인 에우리피데스의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를 원형서사로 삼고 있다. 그리하여 란티모스는 현대 미국 대도시의 영화적 디제시스 내에 ‘신적 존재에 의한 피의 폭력’으로 물든 신화적 세계를 도입하면서 저주와 희생양이라는 신화적 모티브를 변주한다. 본 논문은 <킬링 디어>의 현대의 시공간에 구축된 신화적 세계를 통하여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집단적 희생위기 탈출 기제인 희생양 메커니즘과 욕망과 폭력의 모방적이고 상호적인 특성을 르네 지라르를 경유하여 읽어보고자 했다. 영화 속에서 마틴은 스티븐을 아버지의 자리에 놓으려고 한 자신의 욕망이 좌절되자, 스티븐에게 저주의 신탁을 내린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좋은’ 상호성은 급격하게 ‘나쁜’ 상호성으로 변환된다. 영화는 스티븐의 가족을 통하여 희생양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방식을 탁월하게 묘사한다. 제비뽑기에 의한 희생양 선택은 그 신명심판적(神命審判的) 성격에 힘입어 희생양에게 성스러운 특성을 부여하고, 희생양은 성스러운 존재가 되며 가족의 질서는 재구축 된다. <킬링 디어>는 오래된 신화적 소재를 통해 관객들에게 존재의 근원을 경험하고 그것을 성찰하게 함으로써 고뇌와 고통이 존재의 근원임을 깨닫게 한다.

주요어 : 킬링 디어, 모방 폭력, 희생양 메커니즘, 상호성, 그리스 비극

Abstract Yorgos Lanthimos' *The Killing of a Sacred Deer* (2017) uses *Iphigeneia in Aulis* written by Euripides, one of the three great Greek tragedies writers, as the archetypal narrative. Thus, Lanthimos introduces a mythical world stained with 'blood violence by a divine being' within the cinematic diegesis of a modern American metropolis. And the mythical motifs of curses and scapegoats are varied. This thesis tried to read the scapegoat mechanism, the oldest mechanism of escape from the crisis of collective sacrifice, and the imitative and mutual characteristics of desire and violence through René Girard through the mythical world built in the modern time and space of the film. Martin places a cursed oracle on Steven when his desire to place him in his father's place is thwarted. The 'good' reciprocity between two people is rapidly transformed into a 'bad' reciprocity. *The Killing of Sacred Deer* is an excellent portrayal of how the scapegoat mechanism works through Steven's family. The selection of the scapegoat by lot gives the sacrificial lamb a sacred character thanks to its divine nature, and the scapegoat becomes a sacred being, and the family order is re-established.

Key words : *The Killing of a Sacred Deer*, Scapegoat, Mimetic Violence, Reciprocity, Greek Tragedy

*정회원, 중부대학교 연극영화학전공 조교수 (제1저자)
접수일: 2022년 4월 30일, 수정완료일: 2022년 5월 6일
게재확정일: 2022년 5월 9일

Received: April 30, 2022 / Revised: May 6, 2022

Accepted: May 9, 2022

*Corresponding Author: eskwon@joongbu.ac.kr

Dept. of Theater & Film, Joongbu University, Korea

I. 들어가는 말

요르고스 란티모스(Yorgos Lanthimos, 1973~)는 동시대를 대표하는 그리스 태생의 감독이다. 그의 네 번째 작품이면서 영어로 만들어진 두 번째 작품인 <킬링 디어>(The Killing of a Sacred Deer, 2017)는 그리스 3대 비극작가 중 한명인 에우리피데스(Euripides ; BC 484 ~ 406)의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를 모티브로 삼고 있다. ‘신성한 사슴 죽이기’라는 원제(原題)가 이를 명시적으로 가리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화 중·후반부에는 이 비극이 자의식적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고대 그리스 비극을 원형으로 삼아 란티모스는 현대 미국 대도시를 배경으로 한 영화적 디제시스 내에 ‘신적 존재에 의한 피의 폭력’으로 몰드는 신화적 세계를 도입한다.

이러한 신화적 세계가 그의 작품연보에서 처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전작 <더 랍스터> (The Lobster, 2015)에서는 사람이 동물로 변하는 커플메이킹 호텔이 등장한다. 짝을 이루어야만 생존 할 수 있는 가상의 세계를 그리고 있는 이 영화에서 45일의 유예기간 동안 짝 찾기에 실패한 사람은 호텔 입실시 행해지는 인터뷰에서 기입해 놓은 동물로 변하여 추방 된다.

<더 랍스터>에서 변신(metamorphosis)이라는 신화적 모티브와 구원과 추방이라는 기독교적 신화 모티브가 변용되었다면, <킬링 디어>에서는 저주와 희생양이라는 신화적 모티브가 변주된다. 영화의 오프닝은 이러한 핵심 모티브를 충격적인 방식으로 장면화한다. 클로즈업으로 화면을 가득 채우며 꿈틀대는 붉은 장기(臟器)는 카메라가 트랙 아웃하고 이어서 피가 묻은 수술장갑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쇼트로 커트되면, 이내 수술대 위에 헤쳐져 있는 심장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수술을 집도한 스티븐(Steven)은 마치 신에게 심장을 바치는 제사장처럼 보이며, 이 장면에 장엄한 분위기를 불어넣는 배경음악인 슈베르트의 <슬픔의 성모>(Statat Mater)는 희생양 예수를 떠올리게 한다.

이 영화의 신화적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의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트로이 원정에 오르기 위해 아울리스에 집결한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 아가멤논은 여신 아르테미스가 아끼는 사슴을 사냥하여 죽이는 바람에 신의 진노를 산다. 아르테미스는 그 대가(代價)로 항구의

바람을 멈춰 그리스 군의 출항을 막는다. 그리스 군의 원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가멤논은 그의 살아있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 신탁을 받는다. 아가멤논은 수려한 용모와 재능으로 촉망받는 용사인 아킬레우스와의 결혼을 빌미로 이피게네이아와 그의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를 불러들인다. 항구에 도착해 아킬레우스와의 결혼은 자신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거짓으로 꾸며낸 유인책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이피게네이아는 아버지의 결정에 절망하고 또한 구제해줄 것을 호소하기도 해보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될 것을 선택한다 [1].

이 원형 서사구조를 <킬링 디어>의 그것에 겹쳐놓고 보면 인물간의 대응 관계가 성립됨을 알 수 있다. 즉 자식을 희생양 삼는 가부장 스티븐은 곧 아가멤논이며, 사랑하는 대상을 잃고 그 살해자에게 대가에 해당하는 저주를 내리는 마틴(Martin)은 아르테미스의 변형이다. 저명한 심장의인 스티븐은 몇 해 전 술을 마시고 수술을 집도했는데, 그 수술의 결과로 마틴의 아버지가 사망했던 것이다. 즉 마틴의 아버지는 아르테미스의 사슴이다. 그리고 중국에 마틴의 저주대로 희생되는 스티븐의 아들 밥(Bob)은 이피게네이아의 형상화다.

본 논문은 일차적으로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킬링 디어>가 신화 소재의 그리스 비극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를 원형 서사로 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원형 서사와의 비교 분석 작업을 통하여 <킬링 디어>에 새롭고 낮은 방식으로 구축된 신화적 세계의 의미를 밝혀 보고자 한다. 이 작업은 특히 르네 지라르(René Girard ; 1923 ~ 2015)의 주요 개념, 즉 모방과 상호성 그리고 희생양 같은 개념들을 경유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II. 자기 과신이라는 폭력

<킬링 디어>는 낮은 소년의 방문 혹은 침입이 균형 잡힌 위계 속에서 유지되는 한 부르주아 가족을 파멸 위기로 몰아놓으며, 중국에는 가부장의 희생양 제의를 통해 가족의 질서가 재정립되는 과정을 다룬다. 명망 높은 심장외과 전문의 스티븐은 직장가 가정에서 마치 ‘신적인 자리’에 있는 인물이다. 환자의 생사를 관장한다는 측면에서 그는 현대의 ‘신적 위치’에 있으며,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가부장으로서 위치 또한 그러하다.

카메라는 가부장의 권위가 수행되는 식사 장면을 광각 렌즈를 사용한 하이 앵글과 로우 앵글의 낮은 화면 구도 속에서 차갑게 응시한다. 특히 유사한 방식으로 촬영된 섹스 장면에서 스티븐과 그의 아내 안나(Anna)는 일종의 성적 전희(前戲)로서 ‘전신마취’를 수행하는데, 전신마취 상태를 모방하는 안나의 몸은 마치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의 형상을 하고 있다. 스티븐과 안나가 주고받는 언어 기호(“전신마취?”)는, 이들에게 성적인 행위는 반복적 수행을 통한 제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영화의 모든 비극적 소용돌이를 몰고 오는 것은 스티븐의 어찌 보면 사소한 과오 때문이다. 스티븐은 한동안 술을 먹고 수술을 했으며, 스티븐의 환자였던 마틴의 아버지가 수술 후 사망하였던 것이다. 스티븐이 술을 먹고 수술을 한 것,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이야기한 하마르티아(hamartia)에 해당된다. 비극적 결함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하마르티아란 비극의 주인공이 지닌 결함, 약점, 또는 단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원래는 ‘잘못을 저지르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hamartanein에서 유래했다 [2]. 아리스토텔레스는 타인과 다른 높은 재능과 품격을 지닌 비극의 주인공이 자기 스스로 불행을 불러들이고 파국을 맞게 되는 것은, 악의 때문이 아니라 그의 성격적 혹은 선천적 결함에 의한 판단착오 때문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3]. 또한 이러한 판단착오를 불러일으킨 스티븐의 성격적 결함은 자만과 자기 과신으로서, 이것 역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휴브리스(hubris)에 들어맞는다. ‘지나친 자신, 오만, 오만에서 생기는 폭력’을 뜻하는 hubris는 ‘오만 또는 난폭’의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 hybris에서 유래한 것이다 [4].

여기서 우리는 스티븐에게 투영된 아가멤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데, 비극적 인물 아가멤논이 올림포스의 열두 신중 한명으로 사냥의 여신이자 야생의 동물들을 수호하는 여신인 아르테미스(Artemis)의 분노를 산 것은 비단 그녀가 아끼는 사슴을 사냥했다는 사실에만 있지 않다. 아르테미스의 분노를 사 아가멤논을 불행에 빠트린 것은 그가 “세상에서 자신이 제일 활을 잘 쏜다”며 자신의 활솜씨를 과신하고 오만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그의 줏대 없이 갈팡질팡하는 성격이 이피게네이아를 죽음으로 몰아간다.

병원과 집안에서 신적인 위치에 있는 스티븐의 지나친

자기 과신은 의료사고라는 폭력을 불러일으키고 이 폭력은 연쇄적인 모방적 폭력을 낳는다. 르네 지라르는 폭력은 쉽게 상호폭력으로 변형되는 속성을 가진다고 말한다. 한번 일어난 폭력은 그것을 가해자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복수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복수의 대항폭력은 또 다른 대항 폭력을 일으키기 쉽다. 이처럼 폭력이 상호성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은 멈추지 않는다 [5].

스티븐에게 그가 저지른 과오, 즉 자기 과신의 폭력을 상호적 폭력으로 발전시키지 않을 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스티븐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마틴의 가족에게 사죄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스티븐은 그 자신의 선천적 결함이라 할 만한 오만함으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으며, 심지어 안나가 그의 과오를 캐묻자 수술 당시 마취를 맡았던 동료 의사 매튜에게 잘못을 돌리고자 한다. 마틴과 그의 엄마에게, 그리고 죽은 자에게 사죄하지 않는 마틴은 사죄 대신 호의를 선택한다. 스티븐은 마틴에게 시계를 선물하거나 집에 초대하여 식사를 제공하거나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호의 역시 자신에게 살인의 책임을 부정하지 못하게 하는 ‘죄의식’을 덜고자 하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과시적인 행위이다.

III. 모방폭력과 상호성의 원칙

영화의 주된 갈등은 스티븐의 이러한 휴브리스가 만들어 낸 마틴과의 접촉에서 생성된다. 마틴과 스티븐의 관계에서 작동하는, 그리고 <킬링 디어>의 인물들 간의 관계에서 중요하게 작동하는 원리는 지라르적 의미의 모방과 상호성이다. 지라르는 주체의 욕망은 반드시 매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주체가 어떤 대상에 대해 욕망을 갖게 되는 것은, 프로이트(Freud)가 설명하듯이 대상 그 자체에 욕망할 만한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타자가 어떤 대상을 욕망한다는 데에 있다. 주체는 타자의 욕망을 모방한다. 즉 주체는 타자라는 매개를 통해 타자가 욕망하는 것을 욕망한다. 이때 주체와, 무엇을 욕망할지 알려주는 타자-모델은, 결국 같은 대상을 욕망하게 됨으로써 그 욕망 대상을 두고 다투는 경쟁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이 경쟁관계는 주체와 모델의 사이가 가까울수록 더욱 격렬해지며, 그럴수록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6].

지라르의 이론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욕망과 폭력의 모방적 성격이다.

<킬링 디어>의 첫 장면은 스티븐이 매튜와 병원복도를 걸어가며 매튜의 시계에 대해 말하는 장면인데, 다음 장면에서 스티븐은 그와 똑같은 시계를 마틴에게 선물한다. 스티븐이 마틴을 집에 초대할 시퀀스에서 밥은 마틴에게 겨드랑이 털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여 보고 난 뒤 “아버지의 털이 세 배는 많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후 그 밥의 행위는 마틴에 의해 똑같이 모방된다. 이렇게 영화 속에서 인물들은 서로를 모방하고 행위-사건은 대칭적으로 반복된다.

결정적인 것은 마틴이 스티븐의 집을 방문함으로써 그리고 밥과의 매개를 통해서 가족을 균형 잡힌 질서로 유지하는 아버지-자리를 욕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마틴이 스티븐의 겨드랑이 털을 보여 달라고 하는 모방행위가 이 욕망을 구체화 한다. 마틴은 “당신의 호의를 돌려드리겠다”며 스티븐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스티븐에게 아버지가 좋아하던 영화를 엄마와 함께 볼 것을 요구한다. 마틴의 엄마는 스티븐에게 노골적인 성적 접촉을 시도한다. 정신분석학적으로 보자면 아버지의 자리는 아버지를 죽인 자 만이 차지할 수 있다. 『햄릿』의 서사구조가 그러하며, 오이디푸스가 그의 엄마와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아버지를 죽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마틴의 아버지를 죽인 스티븐은 아버지의 자리에 가장 적합할지 모른다.

그러나 스티븐을 아버지의 자리에 올리려는 마틴의 욕망을 스티븐이 거부하자, 마틴과 스티븐의 ‘좋은’ 상호성은 급격하게 ‘나쁜’ 상호성으로 변환된다. 마틴은 스티븐이 자신(의 가족)에게 저지른 폭력을 모방적으로 돌려주려 한다. 마틴과 스티븐의 우호적인 상호성 원칙에 내재되어 있던 폭력과 갈등의 원칙이 대칭의 단절로 인해 터져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호적 행위가 폭력적 갈등으로 변질되는 순간에도 상호성의 원칙은 계속된다는 것이다. 절대로 상호성은 깨지지 않는다. 밥이 급작스레 ‘사지마비’로 쓰러진 날 마틴은 스티븐을 찾아가 저주의 예언을 한다. 그 내용은 스티븐이 가족 중에 한 명을 선택하여 죽게 해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사지마비, 거식증, 안구출혈, 사망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것, 단 스티븐 자신은 안전하다는 것 등이다.

이 장면에서 좋은 상호성은 순간 나쁜 상호성으로

급전환하며, 영화의 디체시스(Deixis)는 신화적 폭력이라는 폭격을 맞게 된다. 마틴이 신탁을 전하는 예언자인지 아니면 ‘신적 존재’인지 하나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틴이 신탁을 전하는 예언자라면 신은 아마도 죽은 아버지일 것이다. 신화 속에서 죽은 자는 곧잘 신적 역할을 수행하곤 한다. 그러나 마틴이 이 저주를 내리는 논리가 균형(balance)을 맞추는 것이라고, 즉 “당신이 내 가족의 일원을 죽였듯이 이제 당신 가족의 일원을 죽여야 한다”고 말할 때, 이 저주의 주체, 그리고 폭력적 욕망의 주체가 마틴 자신임은 분명하다. 죽은 아버지의 복수의 신탁이라면, 그 살해 대상은 스티븐의 가족이 아닌 스티븐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틴이 내린 저주에서는 ‘내가 받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의 폭력만큼 돌려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 측면에서 마틴은, 사랑하는 사슴을 잃은 고통을 사랑하는 자식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아가멤논에게 돌려주려 하는 아르테미스이다. 또한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는 에우리피데스의 『메데이아』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메데이아는 자신을 버리고 다른 왕국의 공주와 결혼하려는 이아손에게 자신의 고통을 똑같이 되돌려주기 위해 자신의 아이들이기도 한 이아손의 사랑하는 아이들을 살해한다. 이렇듯 마틴은 신적존재이자 동시에 예언자이다.

IV. 희생양 메커니즘과 제비뽑기

밥을 모방하며 스티븐을 아버지의 자리에 앉히고자 했던 마틴은 이제 자신의 아버지를 죽게 한 스티븐의 폭력을 모방하여 그것을 복수라는 대항폭력으로 돌려주려 한다. 그것은 죄와는 무관한 이피게네이아 같은 대체 희생물, 즉 희생양을 만들어 내는 일이다. 이에 안나는 마틴을 찾아가 그것의 불공정함에 대해 질문한다. “내 남편의 과실이었던, 부주의 했던, 뭘지 몰라도, 그가 이 비극적인 일을 일으켰다면, 나는 내가 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모르겠어. 아이들은 또 왜 그 대가를 치러야 하지”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마틴은 정의의 논리를 앞세우는데, 그에 따르면, “이게 공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가장 정의에 가깝다.” 그러나 그것은 폭력과 폭력의 대칭적 관계로 의미되는, 즉 폭력에 대해 폭력을 계산해서 되돌려주는 보복적 정의이다 [7]. 여기서 우리는 비극을 관통하는 원칙을 마주하게

된다. 즉 “비극은 정의의 저울이 아닌 폭력의 저울의 평형인 것”이다 [8].

따라서 영화의 후반부는 이 비극의 원칙을 따라 상호적 모방폭력의 심화 속에서 마틴이 신탁한대로 최후의 희생양이 바쳐지는 과정에 집중하는데, 란티모스는 스티븐의 가족을 통하여 희생양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방식을 탁월하게 묘사한다. 폭력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돌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폭력은 오직 폭력으로써만 멈출 수 있다. 희생양은 공동체 내부가 무차별적 상호 폭력에 의한 복수의 확대 재생산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인류가 만든 제도적 장치이다. 이것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폭력’을 ‘일인에 대한 만인의 폭력’으로 돌리는 것으로, 집단 전체의 큰 폭력의 방향을 한 개인에게 돌려 행하는 대체 폭력이다 [9]. 희생양을 통해서 위기의 공동체는 집단 내부의 공격성을 정화하고 질서를 재정립한다.

종결부에 마틴의 저주대로 스티븐의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이 희생되는 것은 스티븐의 가족 구성원이 마틴의 보복적 정의의 정당성을 인정해서도 아니고 스티븐의 마틴 부친 살해라는 원죄의 죄의식에 감염되어 스스로 처벌을 원했기 때문 역시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티븐에게는 죄의식이 없다. 따라서 가족에게 전염되는 죄의식이 있을 리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 구성원들은 ‘살아남기’라는 동일한 것을 욕망함으로써 상호적인 모방적 폭력의 악순환에 빠져든다. 안나, 김(Kim), 그리고 밥은 죄를 지은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희생에서 면죄되었으며, 희생자 선택이라는 생사여탈권을 쥔 스티븐에게 자신이 살아남아야 할 이유를 설득하거나 잘 보이기 위해 애쓰며, 경쟁자가 된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학교에서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해서 뛰어난 평가를 받았던 김은 그 지식을 활용하여 이피게네이아의 성스러움을 모방하고 성스러움을 가장(假裝)한다. 즉 부모에게 가족 전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희생하겠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그녀는 마틴을 찾아가 조건을 내걸고 자신에게 내려진 사지마비와 거식증의 저주를 풀어달라고 애원하기도 한다. 또한 밥에게는 “네가 죽으면 네 MP3 내가 가져도 되지?”라거나 안나에게는 “엄마는 왜 다리가 마비되지 않느냐”고 도발한다. 이에 안나는 김에게 손찌검으로 돌려준다. 한편으로 안나는 침실에서

스티븐에게 아이는 또 가지면 된다면 두 아이 중 한명을 선택할 것을 중용한다. 밥은 김을 모방하며 스티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아빠가 싫어하는 긴 머리를 가위로 자르고 아빠처럼 심장의가 되고 싶다고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본다면 최후의 ‘성스러운 희생양 죽이기’의 필요성은, 집단 외부인 마틴의 저주 보다는 오히려 가족 집단 내부의 구성원 간의 경쟁 심화가 불러온 모방폭력의 악순환과 차이의 소멸에 따른 위계질서 파괴에 더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희생제의에서 흥미로운 것은 그것이 지라르가 희생양 만들기 메커니즘의 가장 현저한 특성으로 강조하는 전염을 통한 만장일치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제사장 스티븐과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의한 방법은 러시아블렛의 모방적 폭력이다. 이것은 신화적 세계에서 등장하는 제비뽑기의 현대적 변용이다.

제비뽑기는 신화, 우화, 민담 속에 자주 등장하는 우연의 테마 중 하나이다. 우연이라는 테마는 폭력적 해결의 자의성을 드러내는데, 그것은 마치 신과도 같은 것이어서 실수할 리가 없으며, 본인의 뜻이 아닌 것으로 집단 구성원들을 죄책감으로부터 구원해준다. <킬링 디어>의 희생제의에서의 제비뽑기에 의한 희생양 선택은 그 신명심판적(神命審判的) 테스트의 성격에 힘입어 희생양에게 성스러운 특성을 부여한다. 희생양 선택은 인간들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스러운 우연이라는 폭력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희생양은 성스러운 존재가 되며, 구성원 중 하나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이 폭력이 남아 있는 사람들 사이에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게 해준다 [10].

이렇게 스티븐의 가족은 희생양 제의를 통해 가족의 질서를 재정립했으며, 마틴은 그의 보복적 정의가 관철시켰다. 스티븐과 마틴이 처음 만났던 레스토랑에서 마틴과 스티븐의 가족이 마주치고 스쳐 지나가는 마지막 장면은 이를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V. 나가는 말

본 논문은 일차적으로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킬링 디어>가 신화 소재의 그리스 비극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를 원형 서사로 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것이 현대적 서사로 변용되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그리하여 요르고스 란티모스가 <킬링 디어>에서 현대의 시공간에 구축한 신화적 세계를 통하여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집단적 희생위기 탈출 기제인 희생양 메커니즘과 욕망과 폭력의 모방적이고 상호적인 특성을 르네 지라르를 경유하며 읽어보고자 했다.

니체(Nietzsche)는 존재의 근원이 되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것로부터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는 가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에 따르면 위대한 그리스 비극은 신화를 소재로 자연과 세계의 내면에 존재하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본질을 하나의 예술적 가면으로 상징화한 것이다. 이 니체의 진술을 전유하여 이야기하자면,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킬링 디어>는 오래된 신화적 소재를 통해 존재의 근원을 경험하고 그것을 성찰하게 하는 가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적지 않은 관객들이 이 영화를 불편하게 체험했던 이유도 이 영화가 고뇌와 고통에 직면하게 하고 그것이 존재의 근원임을 깨닫게 했기 때문일 것이다.

요르고스 란티모스가 고대 그리스 비극을 현대적으로 변용함에 있어 사용하는 미학적 수단이 서사와 카메라 워크에 국한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특히 그리스 비극의 수행적 공연 형식에서 핵심적인 미학적 역할을 담당하는 합창단의 기능은 많은 부분 <킬링 디어>의 사운드 운용으로 전환되었다. <킬링 디어>에 구축된 그리스 비극 미학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분석이 요구됨에도 본 논문에서는 미처 이 부분까지는 다루지 못했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는 다음 과제로 남겨둔다.

References

- [1] Euripides, B. H. Cheon (trans.), "Iphigeneia in Aulis", *Euripides' tragedies 2*, Soop, pp. 375-446, 2009.
- [2]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531093&cid=60657&categoryId=60657>
- [3] Aristotle, S. S. Lee (trans.), *Poetics*, Moonji, 2018.
- [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22062&cid=41810&categoryId=41811>
- [5] J. S. Kim, *René Girard*, Communication Books, pp.47-48, 2018.
- [6] J. S. Kim, *René Girard*, Communication Books, pp.16-17, 2018.
- [7] H. S. Oh, "Structures of Violence in The Killing of a Sacred Deer: Scapegoating and Rendering Justice", *The Journal of East-West Comparative Literature (JEWCL)*, NO. 56, pp.139-140, Summer 2021.
- [8] René Girard, J. S. Kim and M. H. Park (trans.), *Violence and the Sacred*, Minumsa Publishing Co., p.71, 1997.
- [9] René Girard, J. S. Kim and M. H. Park (trans.), *Violence and the Sacred*, Minumsa Publishing Co., pp.121-122., 1997.
- [10] René Girard, J. S. Kim and M. H. Park (trans.), *Violence and the Sacred*, Minumsa Publishing Co., pp.472-476, 1997.